

곡성 가루쌀로 빛은 ‘네오40’ 출시



세계 최초...‘바로미2’ 생쌀 발효 프리미엄 증류주 전통·현대 기술 융합...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세계 최초로 가루쌀 품종 ‘바로미2’를 원료로 한 프리미엄 증류주 ‘네오40 (NEO 40)’이 공식 출시됐다.

30일 곡성군에 따르면 네오40은 고문헌 ‘고사촬요’에도 기록된 ‘생쌀 발효법’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친환경·저탄소 방식으로 제조됐다.

이 발효법은 쌀을 물에 불리지 않고 곧바로 가루로 가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술 빚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고두밥을 짓는 과정 없이도 제조가 가능해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제품은 쌀 본연의 고소한 품미와 순수한 맛을 살렸으며, 기존 쌀 증류주에서 보기 드문 부드러운 질감과 긴 여운의 섬세한 마무리가 특징이다.

첫 향에서는 은은한 쌀의 아로마가, 입안에서는 부드러운 단맛과 고소한 텍스

처가 조화를 이룬다.

전통주 제조사 시향가의 양숙희 대표는 202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루미 전통주 레시피 개발에 착수했고, 2022~2025년 농촌진흥청 전주 국립농업과학원과 ‘가루미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며 다양한 발효 실험을 거쳐 최적의 배합과 품미를 찾아냈다.

특히 미식계에서 이름을 알린 최강록 셰프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가루쌀 본연의 맛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그는 블렌딩과 테이스팅 전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음식과 조화되는 깔끔한 페어링을 완성했다.

네오40은 온라인유통망(카카오온선물하

기, 우리술한잔 플랫폼)과 롯데마트 보물병커(서울역점, 잠실점, 광주상무점)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된다.

곡성군에 위치한 시향가는 그동안 토란막걸리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전통주로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번 ‘네오40’을 통해 곡성산 가루쌀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다.

양숙희 대표는 “전남도와 곡성군의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민간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었다”며 “네오40을 통해 곡성 가루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곡성은 물론 전남의 양곡창고를 비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네오40은 가루쌀 소비 확대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전통주 및 가공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LOCAL

2025년 7월 1일 화요일

광양제철소, 대기질 개선 앞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부가 공모한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에 선정돼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양만권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지자체가 협력해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방지 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참여 기업은 광양제철소 협력사인 신진기업, 부곡산업, 엠알씨, 진평 등 4곳이다.

총 사업비는 8억4600만원으로 광양제철소가 4억2300만원을 부담하고, 환경부와 광양시가 각각 1억7000만원, 중소기업이 8500만원을 분담해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장정호 포스코 광양제철소 HSE부장은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사례로, 지역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 기업들과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영광, 핵심사업 성과 점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영광군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각 실단과소장 및 읍·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이라는 영광군의 비전 실현을 위해 추진된 민생경제 활성화, 청년·인구정책, 에너지 신산업 육성, 군민 참여형 복지정책 분야 등 군정 전반에 걸친 주요 시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상반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돌아보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실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합동평가 및 각종 공모사업 대응 등 대외성과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금은 군정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되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며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공약과 핵심시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전 부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

담양, 맞춤형 급식지원 거점 마련

은빛급식센터 개관...거동 불편 어르신 도시락 배달

어르신들에게 정성 어린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은빛급식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30일 담양군에 따르면 은빛급식센터는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이 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마을급식경로당

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급식경로당에 운영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사업과 향촌노인종합복지관에도 식사할 수 있는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은빛급식센터가 정성을 담은 따뜻한 음식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어르신들에게 정성 어린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은빛급식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함평읍 중앙길 도로 확장공사 ‘착착’

양방향 임시통행...“33년만 일방통행 해제”

함평군은 함평읍 최대 역점사업인 중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부터 임시 양방향 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함평읍 중앙길 일대는 폭이 좁은 일방통행로에 주정차 차량도 많아 도로 통행과 상가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2023년부터 166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중앙길(중로 2류 9호선) 구간 620m를 18m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왕복 2차선 도로 확장, 주차 구간·보도 신설, 전선 지중화, 클림포그 도입 등 통행 환경과 도심 미관 등 정주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나비어울림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조성이 완료됐으며, 함평읍사무소도 조성 중인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중앙길 일대에 경찰서를 신축할 계획으로, 중앙길 일대는 빠른 속도로 도시 발전 기반과 활력을 갖춰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군정 민원실부터 농업 함평군지부까지 420m 구간 준공 전 주민 생활 편의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해 아스콘 기층 포장을 완료했다.

함평경찰서가 개최한 ‘2025년 제1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 해제 및 양방향 통행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임시 양방향 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전선 지중화까지 완료되는 올해 말까지 620m 전 구간 개통 및 양방향 통행을 시행할 방침이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여수, 국제학술대회 ‘ICRTH 2027’ 유치 총력

필리핀서 MICE 마케팅·협약 조직위, 이달 중 방한 예정

여수시는 최근 필리핀 리세움대학(LPU)에서 열린 ‘2025 책임관광과 환대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ICRTH 2025)’에 참가해 2027년 대회 유치 활동에 나섰다

고 30일 밝혔다. 시는 세종대학교 관광산업데이터분석랩(TIDAL)과 함께 ICRTH 조직위원회에 서울과 여수를 치기 개최지로 제안했다. 조직위는 다음달 여수를 방문해 행사장과 관광 인프라를 점검한 뒤 오는 8월 최종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ICRTH는 유엔관광청(UN Tourism) 등 국제기관이 후원하는 지속가능 관광 분야의 대표 학술대회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시는 대회 기간 중 필리핀 여행업체를



여수시는 최근 필리핀 리세움대학(LPU)에서 열린 ‘2025 책임관광과 환대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ICRTH 2025)’에 참가해 2027년 대회 유치 활동에 나섰다.

대상으로 마이스(MICE) 설명회를 열고, 현지 80여개 업체가 소속된 UTAOA(필리핀여행사협회)와 마이스 공동마케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협회 회원사들은 9월 중 여수를 방문해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와 현지 여행사 IRC(Island Resort Club)를 찾아 여수의 마이스 기반시설과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홍보 협력을 약속받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2026여수세계계엄박람회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행사가 여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발맞춰 다국가를 상대로 한 전략적인 마이스(MICE) 마케팅 활동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